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 해산총회 개최

시민과 함께한 준비 여정 마무리… 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 보태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철)는 지난 18일 위원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해산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총회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위원장 인사말씀, 범시민준비위원회 추진 유공 표창장 수여, 내빈 격려사, 해산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범시민준비위원회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숙박·음식·교통·질서·청결 등 5대 실천시민운동을 비롯해 박람회 홍보 캠페인, 섬 환경정화, 자매결연 사업, 자원봉사 운영 등을 추진하며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지역 역량 결집에 힘썼다. 또한 민·관 합동 캠페인 추진과 지정업소 친절·청결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여수를 찾는 방문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안규철 위원장은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위원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함께 만들어 온 섬의 가치와 여수 발전을 향한 열정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유치 초기부터 폐막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뜻을 모으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범시민준비위원회는 이번 해산총회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그동안 쌓은 시민 참여 경험과 섬에 대한 관심, 지역 공동체의 협력 정신은 여수의 섬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해산총회는 지난 4년간 위원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동안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시간을 되새기며 서로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섬의 가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형성된 민·관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섬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4년간 활동 마무리 사진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오는 21일 '2026 큐브위성 체험캠프' 개최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순천로봇교육과학관 일원에서 순천SAT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큐브위성 체험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국립순천대학교가 주관하고 KAIST 우주연구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위성 개발·운용 과정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는 사전 모집을 마친 청소년 10팀이 참가해 위성체를 직접 설계하고 조립하며 드론을 활용한 비행과 교신 과정을 체험한다.

이를 통해 위성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배우고 우주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로봇·AX 페스타'와 연계해 KAIST 우주연구원 박홍영 박사의 특별강연과 2027년 하반기 누리호 6호기에 탑재 예정인 '순천샛(SAT)' 위성 모형 전시도 진행된다. /이유빈 기자

광양청년꿈터, 'CONNECT:ON-소셜다이닝' 성료…만족 100%

광양청년꿈터(센터장 배혜금)는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3회에 걸쳐 운영한 'CONNECT:ON-소셜다이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차별 10명씩 30명이 참여했으며, 매회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광양읍 달그락 청년공작소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광양청년꿈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복합문화공간 인서리공원과 공동 기획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청년들이 함께 요리와 식사를 하며 서로 교류하고, 2027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요리 체험은 인서리공원 고은정 매니저의 지도에 따라 광양 매실을 활용한 '매실 버터 잠봉뵈르'와 '매실 에이드'를 만들었다.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광양청년꿈터와 인서리공원의 주요 사업 및 광양시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2027년 희망 활동으로 댄스·요가 등 운동 프로그램, 그림·스피치 등 역량 강화 과정, 제빵·핸드드립 등 취미 강좌와 모임형 활동 등을 제안했다. 광양청년꿈터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관심사와 수요를 반영한 2027년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음식만 만들어 먹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양청년꿈터는 올해 남은 기간 고3 수험생 등을 위한 사회생활 꿀팁 강의와 청년 대상 재테크 강의, 원데이 클래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 교육 실시

곡성군은 지난 16일 곡성군 가족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2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부동산 중개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곡성군 민원실의 부동산 거래 유의사항 안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곡성군지회 김병욱 지회장의 재능기부 강의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중개보수, 실거래 신고 절차와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등 실제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뤘다. 또한 군은 외국인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안내문을 영어·중국어·베트남어·캄보디아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배포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외국어 번역본도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다문화가족 주민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실제 거래에 필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줘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올해 1월부터 가족센터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곡성군지회와 협력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동산 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어 안내 서비스와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자원봉사단체 '산애삶애', 구례읍 신촌경로당서 '동지팥죽' 나눔 봉사 펼쳐

산애삶애(회장 박만우) 자원봉사단체는 지난 11월 18일 구례읍 신촌경로당을 방문해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동지팥죽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산애삶애 회원 15명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직접 새알심을 빚고 정성껏 동지죽을 끓이며 구슬땀을 흘렸다.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끈한 동지팥죽을 대접받은 신촌경로당 어르신들은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식사를 마쳤다.

산애삶애는 구례군 관내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며 꾸준한 어르신 공경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단체는 앞서 지난 9월 15일 간전면 양동경로당에서 따뜻한 수제비를, 10월 26일에는 광의면 유산경로당을 찾아 구례의 별미인 다슬기수제비를 직접 만들어 대접하는 등 지속적인 먹거리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박만우 산애삶애 회장은 "정성껏 빚어 끓인 동지팥죽을 맛있게 드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힘을 모아 구례군 곳곳의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애삶애는 음식 나눔뿐만 아니라 보훈시설 관리와 지역 환경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심선섭 기자

